

종교교육학연구 제16권. pp.121~14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한국인의 정체성과 천도교의 종교교육

- 동학과 문명동진론 -

盧泰久

(경기대학교)

《요약》

본고는 21세기 새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문명체계와 세계의 지도원리가 동학에서 모색되어질 수 있다는 문명동진론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 분단의 국가적 모순과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를 두고 자주 평화 통일과 신문명 건설에 이르기까지 동학의 토대 위에서 계몽하려는 취지로 이 논문은 그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의 동학사상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모색하려는데 본고의 독창적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종교교육에 있어서 동학과 문명론을 부제로 하여 주로 동학이 가지는 사상적 특징들을 개괄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동학사상을 통하여 한국민족주의를 정립하고 남북통일의 이상을 이루어내는 한편 나아가서 동학이야말로 서구의 물질문명에서 벗어나서 동양의 정신문명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문명전환의 과정에서 그 신문명의 대안으로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치이념이나 새로운 문명의 사상사적 대안이 한국의 통일이념을 통해서 추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고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 동학, 한국민족주의, 정체성, 종교교육, 통일

I. 서론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인 문명의 전환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문명보다는 정신문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동양을 중심으로 물

질문명 중심에서 정신문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세계는 2000년대를 동양의 시대로 예측하고 서구에서 발원된 문명(文明)이 아시아로 동진(東進)하고 있다는 문명동진론(文明東進論)'을 내세우고 있다. 서양사상은 지금 그 체제에 한계를 느끼고 동양사상으로 온갖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서양사상이 한계에 부딪치자 동양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한반도가 아시아에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 제도, 풍습을 우리 민족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통합과 정체성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전통사상에 주목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잘 반영한 동학사상(東學思想)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학은 21세기를 대표하여 선천시대의 물질문명 주의의 가치관의 혼동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종교간의 갈등과 불일치를 타파하고 후천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문명의 성격과 본질 그 구조를 밝혀 인류의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은 한민족 최초로 농민 스스로 반 봉건, 반 침략 세력에 대항한 민중들의 최초의 민주주의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성장이 더딘 시기에 우리나라 철학사상에서 다양한 종교들을 단기간에 융화하면서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지향을 담은 사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II. 동학의 정체성에 대해

1. 동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동학의 정체성이랄까 중심사상을 타종교와의 이념적 가치의 관계 속에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자.

첫 번째가 동귀일체론(同歸一體論)이다. 이 이론에서 사회전체는 인간의 육체와 같다고 보고 있다. 즉 인체의 신경, 세포 하나하나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같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인여천설(事人如天說)이다. 즉 사람을 섬기되 하늘처럼 섬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인여천사상에서 타종교와 아우를 수 있는 인내천사상이 나올 수 있었다. 수운은 그의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 시천주(侍天主)사상에 기초하여 '인내천' 사인여천'의 사상을 정립하였다. 먼저 천인합일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운

은 천'과 연'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며, 사람이 명덕을 더욱 밝히면 이 천인합일의 신령한 지기(至氣)의 상태가 되어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운의 위대한 독창적 발견은 연'에 중심과 무게를 두어 천'이 연'안에 들어오는 인간 중심적 천인합일사상을 정립한 점에 있다. 수운의 연' 안에 천'이 들어오는 새로운 인간 중심적 천인합일사상은 바로 "사람이 한울님을 몸과 마음 안에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사상을 정립케 하였다. 동학의 신윤리, 신도덕은 과거의 봉건적 계급도덕이나 자본제적 개인중심의 도덕을 부인하고 자연상태의 인간성을 기초로 한 인격분위의 도덕이다. 동학의 인내천, 사인여천사상은 인간을 지고지귀(至高至貴)한 한울님과 동격에 설정함으로써 그 때까지 전세계 종교들이 창안한 휴머니즘 중에서도 최고의 휴머니즘을 창도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세 번째, 보국안민(輔國安民)은 지기일원(至氣一元)' 수심정기(守心正氣)'의 사상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수운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하여 지기일원의 철학사상과 수도의 핵심으로 수심정기사상을 정립하였다.

네 번째, 천부천록설(天職天緣說)이다. 이에 의거해 본다면 수운의 경제적 평등권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인간은 누구나 마음 안에 각각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한울님은 어떠한 기준에 따른 차별없이 똑같은 한울님이며, 모두 동일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모두 평등하다고 보고 노예해방을 주창하였다.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에 조선의 상황으로 보아 노예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것이다.

여섯째, 순도(殉道)정신과 실천운동은 동학의 지도자들이 반제·반봉건의 이상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성봉건사회의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우면서 백절불굴의 초지를 시종일관하여 나아가 생명까지 바치면서 동학의 정신과 그 기백을 살려간 것이다. 동학의 이념은 이와 같은 이론보다는 행동에서 스스로 명시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곱째, 동학은 후천개벽(後天開闢)이다. 후천개벽은 분열에서 통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이룬다. 생각해보면 현대의 유산 무산의 계급적 분열은 최후단계인 동시에, 계급해방운동은 분열에서 재통일되는 최초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계급적 과정에서만 아니라 종교·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것이 다같이 과거에서 통일로부터 분열되어 오다가 지금은 분열에서 다시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간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동학의 개벽운동은 바로 이 원리에 기초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통일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덟째, 불연기연(不然其然)적 역사관이다. 사람의 의식적 작용이 없으면 경제

적 조건이란 것이 저 혼자서 변화해질 리가 없고, 또는 경제적 조건이 변화되지 않고는 사람의 사상이 저 혼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아홉째,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이상(理想)이다. 지상천국은 동학의 종교적, 정치적 최고 이상이다. 수운은 서학의 천당설에 반대하고 지상천당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상천국의 이상은 원래가 영원성을 가지는 것으로 어느 한 시대, 한 단계의 혁명에서만 완성될 것이 못되므로 동학의 정치운동은 항상 보다 나은 신사회를 지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2. 동학혁명의 의의

1894년 갑오동학혁명은 우리 나라의 근대투쟁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큰 반침략·반봉건투쟁이었다. 동학혁명은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통치자들의 악정으로 첨예화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의하여 일어난 민족적이며 진보적인 대중투쟁이었다. 당시 농민들을 비롯한 각 계층의 인민들은 외래 침략자를 물리치고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며 봉건적 악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진보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참으로 갑오농민전쟁은 큰 규모의 구국투쟁이었으며 전례없이 강력한 대중적인 계급투쟁이었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여러 가지 주·객관적 요인들로 하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농민전쟁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우선 농민전쟁의 기본담당자였던 농민들 자신의 사회계급적인 제한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농민들의 경제생활조건의 고립성과 분산성은 전제수행에서도 나타난 농민의 수는 수십만이라는 규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지휘 밑에 조직된 전투부대로서 참가한 농민의 수는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 또 동학군이 전쟁과정에서 발로시킨 전략전술상의 부족한 점들이었다. 그들의 우유부단성과 완만성은 전주화약 이후 휴전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한 점과 특히 일제침략자들이 왕궁을 점령하고 중·일 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곧바로 전열에 정비하여 서울을 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동학군이 투쟁에서 범한 전술상의 큰 잘못은 필요없는 방어전과 무모한 공격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당시 조선사회 발전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농민군의 투쟁에서 선진계급의 지도를 받지 못한 것은 동학혁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미숙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민족 부르주아의 지도를 받을 수 없었고 더구나 노동계급의 지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동학혁명의 규모와 기세는 전례없이 크고 격렬하였으나 투쟁을 봉건제도의 철폐문제와 결합시키지 못함으로써 중세기적 농민전쟁의 결함을 또다

시 반복한 것이다. 동학군이 주창한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구호도 봉건제도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 무장간섭과 그에 대한 미·영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열강의 지지에 있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교활하게 조선의 독립, 동양의 평화, 내정의 개혁'등을 표방하였으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조선인민의 지향과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동학혁명은 그토록 큰 규모로 1년 동안 치열히 전개되었으나 마침내 많은 희생을 내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동학혁명에서 인민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으며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대중적 반봉건·반침략 투쟁이었다. 이는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강毅한 투쟁기개, 용감성과 희생성, 민족적 단결력을 크게 시위한 데 있다.

동학혁명에는 피압박계급의 기본대중이었던 농민을 비롯하여 천민, 상인, 수공업자, 하급관리 그리고 나중에는 반침략적 성격을 띤 전쟁으로 발전하자 군인, 관리, 유생 등 지배계급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그 용감성과 불굴의 투지로 조선인민의 애국적 민족전통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 후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적 투쟁에 크게 고무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또한 우리나라 사회발전 특히 근대화운동을 힘있게 추진한 데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실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근대화운동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농민 전쟁에서 과시된 피압박민중의 거대한 힘은 외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이 연합에 의하여 위축되어진 혁신세력의 개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마침내 부르주아 개혁을 낳게 하였다.

당시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혁신세력이 매우 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내각이 출현하고 혁신내각이 노비제도의 철폐, 국가체제의 근대적 개편, 봉건적 수탈체계의 정비 등 부르주아 개혁인 갑오개혁을 수행하게 된 것도, 그리고 갑오개혁에 조선사회 발전의 성숙된 문제들이 반영되게 된 것도 그것은 모두 갑오동학혁명의 결정적 영향에 있었다. 이렇게 동학혁명이 직접·간접으로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갑오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또한 그 투쟁과정을 통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반침략·반봉건 투쟁역량을 전반적으로 단련·강화시킨 데에 있다. 일체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야만적 탄압에 의하여 수많은 동학군(농민군)의 지도자들과 인민이 희생되었으나 투쟁에 참가하였던 적지 않은 지휘자와 군중을

단합·단련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을 고무·동원하여 반제·반봉건 투쟁역량을 키워주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여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각종 형태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다.

Ⅲ. 통일과 한국민족주의

오늘의 한반도의 상황과 조건은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격변은 실로 한국의 분단 이후 처음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 통일문제에서 파생되며 그것을 축으로 진행되는 변화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주변의 정세변화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와 폭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학혁명의 정치적 성향을 통해 현 단계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화합의 적합한 이데올로기를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는 오늘 날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사명이자 해결해 가야할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들도 한반도의 실정을 두고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적 체험을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에 알맞은 우리 나름의 이념적 성향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각각 21세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통일은 아울러 미래를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학혁명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에 관련된 자료의 분석과 재조명을 통하여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이념노선의 정립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실천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1876년 개항이후 한·일 합방에 이르는 시기는 봉건적 사회모순과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의해 민족모순이 첨예화되는 시기였다. 내부적으로 봉건적 사회체제를 타파하고 새롭게 근대사회,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독립국가를 보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변혁의 과제는 반제 반봉건의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대적 사명인 자주화,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구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상황의 극복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주화, 민주화, 통일의 문제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어디까지나 민족주

의적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주체가 민중이 되는 민족국가건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하며, 나아가 외세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동학사상의 정치적 지향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천을 더욱 열심히 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와 문화주의에도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정치의 현실의 당면과제는 역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치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20세기에 와서 극렬한 대립상은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부터 체제간의 대립, 경제의 구조, 형태상의 대립으로 발전되어 냉전체제로 이어졌다. 자유주의의 시장경제체제와 전체주의의 계획경제체제의 두 경향은 오늘 날 상호보완성이 인정되어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탈냉전시대로 접어드는 세계체제상의 대변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을 맞이했으며, 동구권 국가들이 개방화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개방과 개혁으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우리는 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데올로기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통합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자주적, 민주적, 민족적 통일을 이룩해가야 한다.

1. 민주주의

첫 번째, 민주주의이다. 한국적 정치사상의 이념적 체계는 동학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동학사상이야말로 한국 전통사상의 근대기적 집대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문제는 동학사상을 근원으로 하여 생겨난 한국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융합시킬 수 있는 이론은 동학사상 등 우리 나라의 전통사상에 토대한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동학사상에 근원을 둔 조화이론이자, 통합이론으로서 자주적 혼을 불러 일으키고 민족적 대화합에 기초를 둔 평화적 민주적 이론체계이다. 민족과 개인의 자유도 사회적 평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모두 동학사상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펴므로 해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여 한민족공동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것이다. 수운은 동학사상의 근원을 시천주(侍天主)로 표현하였다. 이 시천주 사상은 천인이 합일되어 공존하는 사상인데 이 공존사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인간과 우주가 모두 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협동하고 공존한다는 폭넓은 긍정적 사상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성은 본래 천주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서 선한 것이며 협동적이며 평화적이다. 이것이 가혹한 생존경쟁에 시달려 인성이 악화되고 상호경쟁과 투쟁이 성행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지만 인간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동학의 인간관에 입각하여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인내천주의만큼 철저한 민주주의는 오늘 날 서구 사회에서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¹⁾

2. 민족주의

두 번째, 민족주의이다. 동학사상에서 근원하는 민족주의는 민족통합의 이념으로서 주체적 민족정신을 부활함과 동시에 민족 대화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통일의 사상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사회 가운데 가장 유대가 강한 것은 민족이다. 민족은 혈연, 언어, 문자, 사고, 의식주, 생활풍습 등을 같이 하는 역사적 운명공동체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생활풍습을 지키고, 같은 운명을 따르는 민족생활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가 비 동양적이고 비 한국적이다. 민족의 기반이 튼튼한 연후에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평등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먼저 개인주의와 공산주의의 배경을 이루는 민족주의로 환원되어야 한다. 먼저 민족으로 살아나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²⁾ 따라서 남북한의 체제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동학사상에 입각한 한국인의 정체성회복과 한민족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3. 문화주의

세 번째, 문화주의이다. 문화주의는 우선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그 생명의 철학적 본질과 이치를 깨달아 진리를 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문운동, 예술운동, 종교

1) 노태구, 《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 동학사상과 관련하여》, 서울: 백산서당, 1995, 238쪽.; 박종홍, 《한국사상총서》, 한국사상연구회편, 태광문화사, 1980, 9쪽.

2) 노태구, 위의 책, 240쪽.; 이항녕, “통일이념과 동학사상”, 《신인간》 11월호, 천도교 중앙총부, 1989, 13쪽.

운동, 도덕운동 등을 벌임으로써 끊임없이 정신적, 지성적 활동을 통해 진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의 철학을 고찰하는 것은 문화주의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중요하다. 민중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생명체는 이것만 저것만 강요해서도 안된다. 그렇다 아니다'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병적 현상이다. 남북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과 저것은 불연속적이고 모순되고 따로 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속되고 통일될 수 있고 연속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점차로 이것과 저것을 연속적 불연속, 불연속적 연속으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이 명제와 반명제 사이에서 경직된 전투적 관계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종합명제에 도달한다는 식의 단순, 직선 변증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이랄까 '통일'은 착각이고 위태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문화주의 운동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하나의 처방으로서 동학을 비롯한 전통적인 한국사상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명이라는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사상을 체(體)로 하면서 서양의 문명을 용(用)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참 학문, 우리 학문의 모색을 위해 새로운 연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연기연(不然其然)의 메타메시지로서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이중적으로 파악하는 즉, 연속적 불연속적인 동학의 논리로 파악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 운동, 정신사상, 문화운동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계발해 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학사상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동학사상은 그 이론과 도학혁명의 실천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일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의 자립적인 민권의식의 한국민족주의는 국권이 허구화되더라도 굴절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 민족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와 문화주의에의 전망을 넓혀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IV. 동학과 남북통일 사상

1. 人乃天에 대해

동학혁명을 발발케 한 사상이념으로는 먼저 수운과 해월의 정치사상을 들 수

있다. 동학은 사람과 한울님과 상호관계를 철학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연내천(人乃天)이론을 내놓았다. 연내천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동학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동학의 중요한 부분이 평등주의 사상이다. 동학사상의 연내천 원리는 천시인(天是人), 인시천(人是天)이라 하여 인간과 한울이 직결되는 바 이것은 서천주(侍天主)에서 비롯된다. 서천주’는 내 몸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으로 동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을 제출하게 된다. 동학의 이와 같은 인간주체사상은 모든 사람이 계층과 관계 없이 각기 신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신격화시키고 남녀노소나 직업의 귀천이나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차별을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인권이 무시될 수 없는 인간평등의 이념을 제시하게 된다.

동학의 연내천주의’는 인간과 한울님은 그 본질에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천인일체’의 원리를 가짐으로써 연내천은 응용 상에 있어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을 표명하였다. 때문에 연내천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평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사회현실을 놓고 보면 조선 봉건왕조 말엽에 봉건통치자의 부패는 날로 극심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악질만세, 민무사시망안’의 상황에 동학 창시자는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후천개벽(後天開闢)사상을 주장하고 광제창생(廣濟蒼生)하여 압박과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이상을 보여주었다.

2. 민족이란?

민족은 그것이 하나의 실체이건 신화이건 간에 특별한 형태로 상상된 공동체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민족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상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낸다’는 주장들은 모두 민족이 그 구성원들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준을 오늘 날 우리의 민족현실에 적용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려를 바탕으로 우리는 민족이 일종의 의식적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정치집단의 공동체적 범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반도의 민족문제에는 민족과 국가체제의 관계가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민족과 국가는 밀접한 상관성을 지녀왔다. 근대국가는 대개 민족국가이다. 그리고 민족은 국가체제를 통해 그 주권적 존재를 표현하

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곧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에 관한 프로그램과 신화와 실체를 혼합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민족에 관한 신화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것을 단순한 허위날조'라든가 거짓'으로만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다. 민족주의가 만들어내는 민족에 관한 '상상'과 '발명', '창조'등은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이라든지 베트남의 해방투쟁과 같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3. 공동체이론

민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의미도 일종의 신화와 허구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이 인간사회의 역사변동에 있어 중심적 측면과 관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동체의 개념은 간단하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첫째, 동질성을 지닌 소집단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어떤 유의 심성적 혹은 정신적 현상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지구상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마을이나 읍, 도시 혹은 거대 도시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 단위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민족도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 그리고 그 근거로서의 공동체적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공동체의 한 범주임에는 틀림없다.

민족은 대면접촉의 범위를 뛰어넘는 대규모의 특수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은 그것이 일정한 규모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개인들 사이에 특수한 형태의 공동체적 상호작용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민족을 과연 공동체의 범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수한 연결망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민족과 같은 대규모의 공동체를 하위체계 혹은 공동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석한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공동체는 대면적인 소규모 지역공동체들의 연합 혹은 연대구조로 생각된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민족공동체 형성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현대의 공동체이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념적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대 공동체이론은 사회관계의 완전성과 전인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민족주의). 둘째, 현대공동체이론은 공동체적 삶의 이념으로 평등주의를 중요시하고 있다(민권주의). 셋째, 공동체주의

자들에게 있어 공동체는 박애정신과 형제애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민생주의). 넷째, 현재 공동체이론은 미래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요소로서 합리적 토론문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화주의).

4. 동학의 집강소

동학운동의 과정에서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의 조직이 출현하였다. 그것은 접(接 <包>)조직과 집강소(執綱所)이다. 접조직은 동학의 교단조직을 말하고 집강소는 동학군에 의해 설치되었던 자치행정조직을 의미한다. 접조직과 집강소는 모두가 동학운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때 유사한 조직원리와 이념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접조직과 집강소는 모두가 한국 전래의 사회조직적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생각된다. 접과 집강소는 한국의 전통적 조직원리를 근대기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접조직이 한국의 전통적 민간조직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집강소는 전통적 지방자치조직의 발전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조직이론의 조명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접은 동학에 있어 교단조직의 기본개념이다. 접은 그 구성원들의 동귀일체(同歸一體), 즉 공동체적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직적 명령권의 구조가 기능적 의미 이상을 갖지 않는다. 접의 조직구조는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자발적 협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동학의 교단 조직이 접조직이었다면 동학혁명의 자치조직은 집강소였다. 집강소는 교단과 별개의 자치행정조직이었다. 집강소는 공동체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행정이 어떠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집강소는 현대의 신행정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이웃통제모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집강소 행정에서는 자치의 주도권이 주민들의 자발적 공민의식에 입각한 참여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있다. 동시에 집강소는 주민들의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을 행정활동의 주된 자원으로 하였다. 집강소 체제는 공동체적 자치의 기본단위로서의 집강소들이 하나의 이념적 대의를 중심으로 연합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만일 동학혁명이 전국적인 단위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면 한국정치의 새로운 질서는 아마도 자치적 공동체들의 연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원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연합방식'이 대단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동학혁명의 역사는 자치적 공동체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여 한 민족 공동체의 통일원리를 한국민족주의를 정치이념적 모델로 하여 그 훌륭한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동학사상에 의한 교·정 일치의 종교·정치교육을 통해 민족을 통일하며 신문명을 열어갈 수 있는 이념적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집강소의 민족공동체형성의 이론적 기준을 오늘 날 우리 민족현실에 적용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세계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대중사회로 불리는 현대사회의 병리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이미지로서 공동체가 현대인들에 의하여 회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대중사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오늘 날 대중사회는 군중 속의 고독과 소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임을 느끼지 못하는 심성적 단절, 비참여, 목적-수단적 사고의 지배에 의하여 사회관계에서 인간적 가치가 배제되는 분절화 등으로 상징된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는 구성원들 사이의 일체감, 공동의 목표추구에서 오는 심성적 통일성,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자발성, 전인격적 사회관계를 의미하는 전체성 등으로 상징된다.

오늘 날 민주주의는 건전한 시민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민족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민족집단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상에 있어 민족국가와 민주주의는 이것이 근대성을 대표하는 현상인 이상 공동체적 원리보다는 자유주의적 결사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사회, 즉 근대세계에서 인간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구나 모두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현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너무 고독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구조적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친밀하고 따뜻한 전인격적 인간관계는 날로 소멸되고 경쟁과 이해타산과 상호 반목이 날로 격화되어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19세기 이래의 사회사상에서 공동체는 현대인들의 꿈, 즉 유토피아적 이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³⁾

공동체는 하나의 경험적 사실과 관련된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갈 사회구성에 관한 논쟁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 시대의 공동체이론은 그 사회의 희망과 이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 공동체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사람들의 희망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노태구, 《동학과 신문명론》,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0, 123쪽.

동학사상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을 근대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은 19세기말에 급속히 나타난 한국 전통사회의 해체에 직면하여 새로운 사회체제의 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기의 다른 사상들과 달리 동학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다. 동학사상의 자주성은 이것이 한국전통사상의 비판적 종합을 토대로 발전적 사회이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동학사상은 조선왕조의 유교적 통치이념이나 전통적 공동체의 모순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형의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학의 공동체 사상이 집강소 등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이념적 지향 내지 성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국내정치에 있어 계급 화해와 국제정치에 있어 세계평화주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敎·政 조화적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한국사상 특유의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넷째, 동학사상은 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념적 목표로 하였다. 다섯째, 동학이 지향하였던 공동체는 한국사상사의 神·人 합일주의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였다. 여섯째, 동학이 지향하였던 공동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들 사이의 이성적 담론과 합의를 공동체적 결합의 중요한 기초로 하였다.

5. 중국의 경우

동학연구에 관한 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등과 한국의 동학사상에 근거하는 민족주의의 공동체 형성의 원리를 비교해보는 것은 21세기 문명동진론(文明東進論)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양사상을 현대사회의 조건에 맞추어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앞으로 우리 학문개발과 민족정체성 회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부과된 과제라고 하겠다. 오늘날의 한국정치는 정당정치, 지방자치 그리고 민족통일이라는 한국민족주의의 정착을 위한 커다란 과제로 안고 있다. 특별히 공동체 사상은 통일과 지방자치라는 두 개의 국가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민족통일의 대원칙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리고 정치발전은 본질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학의 공동체 사상은 이성적 결합과 감성적 유대가 공존하는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공동체, 전통을 기반으로 하

면서도 그 인습적 굴레를 탈피한 공동체를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학의 공동체사상과 현대 공동체이론의 사이에는 진지한 이론적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현대 공동체이론의 분열에 대하여 하나의 신선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학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적 대안은 우리의 전통사상과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내인적 발전이론을 위한 원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중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토록 철저히 부정되었던 동양적 공동체원리의 복원을 위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우리 학계의 공동체 논의는 서구의 역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발전한 공동체이론들을 진지한 비판없이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의 많은 부분은 전통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0세기에는 공동체주의의 추구'가 하나의 근본적인 주제로 등장하였다. 현대인들 사이에는 오늘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던 근대인들의 업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최근 사회이론이라든가, 생활공동체, 환경 공동체, 문화 공동체 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근래의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모색에 있어 실험적 사례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집조직'을 바탕으로 한 동학의 신앙공동체운동과 '집강소'를 중심으로 한 정치공동체운동 등 동학의 공동체사상을 탐구하는 작업은 민족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대단히 유의한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유일신관에서 기인하는 유물사관을 정치철학으로 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는 달리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이성적 결합과 감성적 유대가 공존하는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공동체,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인습적 굴레를 탈피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한국민족주의론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를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그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민족은 제한된 것이며, 주권을 가진 것이며, 민족은 공동체이다. 그리하여 동학의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현대적 이해를 통해 기존의 냉전논리와는 구별되는 한국의 전통적 정

신문화에 기초한 민족주의의 정치사상만이 민족의 평화통일의 미래에 관하여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동학민주주의의 형성은 한국민족주의의 모델로서 원형적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민족주의의 남북통일사상으로서 동학의 공동체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지향 내지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국내정치에 있어 계급화해와 국제정치에 있어 세계평화주의의 특징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한국사상 특유의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동학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대단히 가까운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 동학사상은 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념적 목표로 하였다. 동학은 사회적 귀천의 구별을 초월하여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하느님을 모신 존귀한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무궁한 자기확대의 가능성을 지녔다고 가르친다. 이런 점에서 동학의 공동체사상은 평등주의를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동학이 지향하였던 공동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들 사이의 이성적 담론과 합의의 공동체적 결합의 중요한 기초로 두었다.

따라서 동학의 공동체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지향은 평화주의, 교정조화의 이념, 휴머니즘, 평등주의, 신인합일주의, 이성적 담론과 합의의 원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대 공동체이론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론들 내에서조차도 어떤 류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대 공동체이론의 분열에 있어 중심을 이루어 온 문제들은 이성 혹은 자유와 공동성 간의 대립, 전통과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회복을 위해서도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와 전통을 도외시한 공동체 논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겠다.

동학혁명의 역사는 자치적 공동체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통일모델의 훌륭한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적 결합과 감정적 유대가 공존하는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공동체,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신분과 착취의 봉건성을 탈피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업은 2000년대 새 천년을 대비한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V. 동학과 신문명론

1. 홍익인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국가발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합목적적인 국가철학을 논의해야 하고 거기에 발맞춰 홍익인간의 현대적 개념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통일과 평화와 국가발전은 어느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개탄이나 원망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요 막연한 기대나 시기의 대망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다.

우리의 타락은 정치적 국가철학이 실재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자유화 민주화만 뇌이는 데서 더 큰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치 타락자체가 그것이고 그 밖의 경제타락, 국민타락, 청소년타락이 모두 정치적 국가철학 부재의 산물이다. 간악한 일제가 패망한 8.15 광복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는 정치적 국가철학을 실질적으로 다루어보지 못한 채 북에서는 공산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고 남에서는 서구식 자유주의만이 절대가치라고 주장하여 양극화로 동족간에 이질화가 굳어진 것이 현실이다. 양극화를 절대가치로 그 모양새대로 엉터리 지식,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오늘 우리의 혼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국가철학을 갖추지 못하고 막연한 자유주의사상, 그 위에 잘못된 지식이 보태어져 그것이 그대로 타락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대자연을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에야 비로소 홍익인간의 정치이념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는 한낱 종교적 관념에 머물 수밖에 없이 된다.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은 소극적 종교적 한계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현실 정치이념으로 된 개국사상이다. 외래사상으로 오랫동안 가리워져 그 진의가 퇴색되고 왜곡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우리 민족이 낳은 최초의 고유사상임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남북한의 경제타락, 정치타락, 인간타락과 사회타락을 함께 보고 있다. 이대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양극을 지양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철학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는 백척간두의 절정에 이른 것이다. 결국은 넘어야 할 산이요 치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가철학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는 구심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최고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결함이 있어도 국가철학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심력이 있어야만 단결이 되고, 최고의 가치관이라야 평화를 말한다. 단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인화 속에 이루어

지는 자율적 협동을 말하는 것이다. 인화와 자율협동으로 되어진 단결만이 진정한 의미의 단결이라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현대적 개념도 이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홍익인간은 상호간의 자율적 보호와 협동으로 철저한 인화단결의 생활철학을 담은 한국 옛 선조들의 정치이념이었다. 물론 홍익인간의 정치이념은 서구와 같은 까다로운 형식적인 법률론이 아닐 뿐 아니라 공산주의와 같은 규범적인 통제이론이 아니다. 삼국이전의 고조선시대는 상고사에 속한다. 상고사회의 덕치문화가 우리 홍익인간의 정치이념이라고 결론지으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따라서 동양최초의 정치이념도 이러한 홍익인간이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힘인 정치사상의 원천을 한국이 가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가치로 고양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살려내어야만이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단결을 호소한다. 인간에 있어 인화단결이 가장 소중한 것은 잘 알면서도 그 단결의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너무 무지하다. 단결이란 말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단결은 위에서 밝힌 홍익인간과 화백정신에 의한 완전한 전민공화(全民共和)와 동귀일체(同歸一體)로서 자율적 보호와 협동으로 된 인화(人和)에 있다. 이러한 단결은 공산주의나 자유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단결론이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식 강권적 통제의 단결은 비평화의 강제적 타율적 단결이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허수아비단결이 될 수밖에 없다. 평화를 그르치게 하는 비극적 단결은 인간성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엔 평화도 없다. 그에 반하여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순전한 개인주의를 지향하여 결국은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단결도 되지 않는다. 엄격한 의미에서 단결없는 평화도 없고 평화없는 단결도 없다. 평화와 단결은 홍익인간의 양면이며 그 쌍전적(雙全的) 일체를 갖춘 것이 홍익인간의 현대적 의미라 하겠다.

2. 홍익인간의 통일이념

홍익인간의 통일이념은 어떠한가 살펴보자.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동질성 회복에는 필연적으로 네 가지 해야 할 작업이 있다.

그 첫째가 남북한 철학의 동질성 회복이고,
둘째가 역사의 동질성 회복이며,

셋째가 양극화한 언론 동질성 회복이고,

마지막 최종에 있어서 체제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는데 이는 서구화된 현대지식이나 양극사상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할 뿐 아니라 해결불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내실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를 단순 서구식 정치사고나 경제사고로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시행착오와 시대적 모순만 낳을 뿐이고 현실은 더욱 절박해져 아무도 막지 못할 험악한 무명 속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네 가지만 해결하면 인류평화의 새 길이 한반도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이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외치고, 통일을 논하고, 정치발전을,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을, 교육개혁 정치개혁이니 또는 환경문제 청소년 문제 등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 모든 것의 단결과 구심점이 되는 국가철학에 대하여는 별 언급조차 없이 막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구호만 맹신하여 밀도 끝도 없는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깊이 보고 멀리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바탕과 철학적 배경,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서의 홍익인간이념은 그 탁월한 기능에 있어서 세계 어느 민족문화보다도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語文이 한국어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척도의 표준은 과학이 아니라 어문이라는 것을 토플러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세계인들이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순이 무엇임을 알고 공산주의 모순이 무엇인가를 직접 알게 하려면 우리의 언어로 올바르게 정리하여 온 국민이 쉽게 알도록 해야 한다.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어문을 두고도 서구적 의식과 서구식 언어표현이 지배함으로써 쉽고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것까지 모르게 되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받아들이되 쉽고 간편한 우리말로 간추려서 아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우리말로 옮겨서 판단하며 새로운 사실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알기가 쉬워질 것이다.

VI. 새로운 정치모델

1. 국가철학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미·일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모델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정당한 국가발전과 분단된 국토통일의 실질적 척도랄까 첩경이 새로운 정치모델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

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노력이 경주되지 않았다. 엉뚱한 권력투쟁만 일삼거나 기이한 지식과 이론들만 앞세워 도리어 가치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무형의 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사는 지식을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의 문제는 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뇌문제로, 사상문제이다. 지금까지 남북은 사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경제나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근본문제를 해결치 못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사상문제는 사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범죄는 무지에 의한 가치관 전도가 주범일 뿐이다. 남한의 모순도 북한의 모순도 최종적으로는 두뇌와 사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다. 우리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동귀일체에 의한 홍익인간 이념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국가철학을 확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를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 우리는 초당적으로 서둘러서 완전한 국민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현대지식은 신령스러운 슬기를 죄다 잃어버렸다. 서구는 그들의 영혼이 자랄 수 없는 과학적 힘만 믿고 있다. 현대지식이 현기(玄機)를 잃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도단세황(道斷世荒)'에 빠진 것이다. 자본의 유물적 가치밖에 모르는 서구의 문명, 이미 공산화되고 서구화로 변질된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모두가 제정신을 잃었다. 정신적 고아가 된 채 남의 사상 뒤만 따라간 것이 지난 반세기이다. 아무도 발벗고 나설 사람이 없는 문화적 주체성도, 교육적 자주성도 없는 와중에서 IMF한파가 몰아닥친 것이다. 문화식민지 다음에 경제식민지로 전락한 남미제국들의 마지막 주권상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나라가 가야할 길은 공산주의도 서구민주주의도 아닌 수운의 동학의 인내천주의(人乃天主義)의 길이다.

오늘의 정치를 철학이 없는, 원칙이 없는 정치라고 한다. 세상을 개조하려면 먼저 정치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학은 서구의 정치학이었다. 서구는 철학이 없는 과학만을 가지고 있다. 서구가 앞지른 것은 과학의 힘이다. 과학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으나 종교와 정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다. 이것이 서구의 정치와 종교가 왜곡되는 원인인 것이다. 이상적 종교와 정치는 이상적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서구의 진리를 잃은 탈선된 민주주의는 서구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철학은 진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정치는 인격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제 서구의 정치학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이며 반 문화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야 한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한국의 정치가 바로 서야 인류의 평화가 해결될 수 있다. 세계의 학자들은 동양에서 새로운 정치모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는 바로 동학의 정치모델 개발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국가 발전하려면 정치가 먼저 안정되어야 하고 정치안정은 정치학이 바로 서야 한다. 인간이 인간 이하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비인간화 교육, 쌍전적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경제 일방적 가치에만 치중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비인도적 사회가 오늘날의 서구화와 공산화인 것이다. 인간학이 부재한 서구의 신관이나 자본주의의 물질적 사조와 유물사조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로는 오늘의 정치적 결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철학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밝힌 것이 동학이다. 서구와 같은 자본주의적 관념론이거나 공산주의와 같은 유물론이 아닌 동귀일체의 지기일원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물(物)·심(心)이 갈라지기 전 만유(萬有)의 본질을 지기(至氣)라 한다. 즉 유물유심의 본체요, 만유생명의 본질이 지기라는 것이다. 지기일원론은 공산주의와 같은 무신론도 아니며, 서구와 같이 만유와 분리된 초월적 유일신이 아닌 범신, 또는 다신관인 자연신관을 배경으로 나온 인간해방의 생명론이다.

동학의 지기일원론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적 유심론이나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모두 유물사조를 중시하는 것으로 동질적인 것이면서 기능적 운영 상에서만 그 방법을 달리하는 단순 사고들이거나 일면적 사고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들의 일방적 사고는 본래부터 맹목적이면서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서구의 유일신관이나 유물론이나 민주주의가 모두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사상의 체계가 조화력이 없는 갈등적 극단론의 단순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기일원론에 바탕한 쌍전철학(雙全哲學)은 공산주의 유물론이나 서구의 자본주의 유물사조로서는 터득하기 힘든 한국철학의 요체이다. 지금 이 나라가 가야하는 길은 공산주의도, 서구 민주주의도 아닌 수운의 동학으로 가야 한다. 즉 동학의 '지기일원론'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에는 3독이 있다.⁴⁾ 첫째는 공산주의와 서구민주주의의 냉전적 갈등이다. 둘째는 이 양 이념에 기초한 권력구조인 소비에트 체제와 미국식 대통령제, 유럽식 내각제가 좁은 국토에서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무변화이다. 통일된 민족국가는 하나여야 하는데 하나의 민족에 두 가지 이념, 세 가지 체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3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남북한 체제와 미·일의 체제를 동시에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 운명적으로 한국에서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4) 안호상 박사는 3毒으로 倭毒, 中毒, 洋毒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개벽공동체

우리나라는 남북한간에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체제가 정착되면서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학사상에 기초한 지기일원론적 인내천원리의 정치이념을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민족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민족공동체가 신정치문화와 체제를 위한 개벽공동체이다. 개벽공동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제, 현대통령제의 일부 수정보완론, 서구적 내각제, 쌍전적 신내각제의 승화로 완전 자주적 개벽공동체로 발전, 확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각제가 쌍전적 권력구조의 과정을 거쳐 완전 자주적 개벽공동체가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정치모델로 여기서는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신내각제로 발돋움해야 한다. 자연에 음과 양이 있듯이 정치도 음과 양이 있다. 그것은 분치적 쌍전으로 공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순리적 정치학이라 보고 정치의 음과 양은 문화와 행정으로 구분하고 문화를 행정으로부터 독립케 하여 분치적 쌍전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하여 분단논리를 두고 대통령제의 특징을 살려 문화와 행정을 분치적으로 쌍전케 해야 한다는 것이 쌍전적 내각제이다. 이를 우리는 개벽공동체 정치체제로 호칭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시할 것은 완전한 자주적 민주체제로, 그 가운데서 특히 세계화는 먼저 민족의 토착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적 주체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 없는 세계화는 끝내는 오늘과 같은 IMF 위기를 초래하게 한다. 기존의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비하여 개벽체제는 그 이념적 원리가 서구식의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조화가 아니라, 동양식의 유기체적이거나 화학적인 조화로 분치적 쌍전적 체제이다.

반면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대통령제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의 왕정이다. 1인의 절대 권력인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부정과 비리의 근원이었던 이 절대권력의 모순을 감춰둔 체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 이를 관행으로 여기고 그를 신봉해왔던 것이다. 중국의 등소평은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으로 13억의 인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모택동의 일인 독재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중국인민을 독재 정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일인체제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권력체제의 획기적 발전에 큰 원동력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면서도 권좌에 오르지 않고 동지들과 공산주의의

장래를 지켜보면서 애국애족의 중국민족주의 정신으로 실용주의를 실천하면서 여생을 마쳤다.

대통령제의 모순 뿐 아니라 내각제에도 불완전한 점이 있다. 내각제 개헌에 있어서 기존의 내각제나 타국의 의원내각제의 모방에 그쳐서는 안되고 미래지향의 주체적 개벽공동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발전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오늘 정치개혁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치체제의 개편이 없이는 정치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다 줄뿐이다. 동학이념을 통한 정치체제의 개헌에 오늘의 한국은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주장하는 쌍전적 정치문화와 개벽적 정치체제는 기존의 대통령제의 독재와 내각제의 혼란을 다같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방 민주주의 정치문화와도 그 성격을 달리 한다.

3. 쌍전적 협의제

서구식 내각제가 아닌 한국의 토착문화에 근거한 주체적 쌍전적 협의제, 그것은 분명 서방의 일원론적인 갈등론적 대결구조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완전한 철학과 행정이 상보적인 협조적 정부형태이고 국민과 정부가 쌍전하는 조화론에 의한 영구평화의 개벽공동체 정치체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벽적 정치체제도 새로운 정치학에서 나와야 한다. 신정치학이란 정치적 인격과 지식을 고도로 승화시키는 최고의 인간학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 한국은 서구의 정치와 같은 금권정치가 아닌, 이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정부형태의 모델을 창조해내어야 한다. 이제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정립을 위해 체제의 모순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다.

문화의 정신 축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인간의 세계관, 인생관, 윤리관, 윤리도덕의 질서이자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그 문화가 가진 신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고 설명된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지도이념도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은 문화의 정신이고 생명이다.

동양세계의 정신을 낳은 신은 범신(汎神)이다. 서양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인격신(人格神)인데 반해 동양의 범신은 자연자체인 동시에 비인격체이다. 그러므로 역사나 인간의 운명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도 곧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학을 창조한 수운(水雲)은 이는 인류가 참된 신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신성의 소외로 진단한다.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문화와 가치관의 결과로 인간성이 소외되고 사회의 병리현상이

일어났으므로 참 한울님을 찾아 그의 천도(天道)를 인도(人道)로 하여 병든 인간과 사회를 치유하여 군자와 성인의 사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학사상은 본래 고조선의 신선도에 뿌리하고 있으며 수운의 한울님도 우리 조상들이 고대로부터 믿고 섬겨오던 한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동학정신은 곧 우리 민족의 본래의 정신이다. 이 문화와 정신은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외래문화가 들어와 혼합된 정신이 아니고 고조선 이래 전승되어온 순수한 민족주체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도 순수한 민족정신이었던 동학정신만이 냉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다. 오늘 날 국내적으로는 중진국의 단계에서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선진국화를 모색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세계화에 대응하면서 제3의 개국을 하면서 선진자본주의를 확립하는 역사적 조정기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논리와 한국의 논리의 조화, 의식과 행동의 세계화를 위한 가치관, 세계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인간들의 피부색이 제각기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다양성과 개성은 그것이 가치인 동시에 생명이기도 하듯, 정치문화도 그 개성이 제각기 달라야만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도인 동학의 진리는 세계의 문화가 본질적인 면에서 같아진다고 해도 민족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따라 그들이 이루어내는 문화적 표현은 천태만상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다양성 속의 조화라는 자연의 이치가 동학사상의 원리로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대문명이 무너져, 세계는 지금 혼돈과 공허 속에서 물질만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경쟁하는 야수들의 약육강식의 마당이 되어버린 이 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인 정치질서, 세계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참 한울님을 찾아 세워야 한다. 그 동안 동학을 망각함으로써 참 하나님과 후천상제인 수운까지 잊어버리게 되어 나라도 망하고 세계가 한꺼번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동학의 교단도 그 세력이 침체일로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한울님과 동학을 다시 살려내야 하는데 그것은 진신(眞神)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연의 한울님이어야 한다. 그러한 한울님을 서양에서는 살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실증주의적 문명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분별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과 세계를 통일 조화하는 신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하느님도 우리 동학의 천도에 의해서만 찾아 소생시킬 수 있다.

VI. 결 론

한국은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동학을 되살리고 동학을 국학으로 인정하고 교정일치(敎政一致) 교관점수(敎觀漸修)의 종교교육을 해갈 때 비로소 동학의 조화이론(造化理論)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학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 통일공동체의 새로운 조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으로 하여 앞으로 도래할 태평양시대에 새 천년을 주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는 한민족이 하루빨리 동학사상의 깨우침을 자각하고 온 국민과 국가가 합심하여 평화공존·평화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 동북아 중심국가(Hub)시대를 열어 문명동진론을 주도해가는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문명동진론의 시대에 즈음하여 민족의 평화통일과 신문명론의 이론적, 이념적 근거를 제공해주기 위한 우리의 참 진리, 참 학문의 사상을 위하여 동학의 인내천(人乃天)논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노태구, 《민족주의와 국제정치》, 서울: 백산서당, 2002.
 ———, 《평화통일의 정치사상》, 서울: 신인간사, 2000.
 ———, 《동학과 신문명론》,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0.
 ——— 편역, 《동방민족주의론》, 경기대 학술진흥원, 1997.
 ———, 《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1995.
 ———, 《근대정치사상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1987.
 ——— 역, 《사회사상사》, 서울: 백산서당, 1982.

원고접수: 5월 6일 1차심사: 5월 12일 게재승인일: 5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정치학 / 소속: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② 관심영역: 한민족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사상연구
- ③ 주요논저: 《동학과 신문명론》, 《평화통일의 정치사상》, 《민족주의와 국제정치》
- ④ E-mail: damahm@hanmail.net

The Identity of Korean and the Religious Education of Cheondogyo

N oh, T ae-goo

(K yonggi U niversity)

《Abstract》

This manuscript, in meeting the 21C of the new millenium, presupposes that the system of civilization in future and the leading assumption of the world will be originated in Donghak(東學: The East Learning).

The contradiction of state in the divided Korea and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orthodoxy can and should be enlightened on the foundation of the Donghak in order to accomplish the self-sustaining peaceful unification and eve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vilization. With this meaning this theme was chosen.

So to speak in the korean Donghak Thought(東學思想) the creative attempt of this article is put pursuing the leadership guiding to the optimistic future.

In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recovering the Korean identity this letter, with the subtitle of the Donghak and the 'on civilization', is outlining the thoughtful features of the Donghak.

In other words, through Donghak Thought the korean nationalism will be built and the ideal of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can be completed.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even with Donghak beyond the western materialistic civilization the new civilization will be emerged as a alternative with the Eastern spiritual civilization in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 developing newly.

As a result,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not onl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new integrating state, but also the alternative of the thought by the new civilization will become the goals and can be attained with researching for the idea of Korean Donghak.

Key Words: Donghak(East Learning), Korean Nationalism, Identity, Religious
Education, Unification